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을 적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송혜련*·정현숙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요약

다양한 문화권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현대 패션에서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 전통문화도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인 미로서 인정받게 된다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화는 민중에 의해 그려졌고 발전된 대중적 예술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우리의 정신과 염원이 담겨 있는 민간예술이다. 민화의 화려한 색채와 조형적 예술 양식이 복식에 어우러져 다른 미를 창출했을 때 세계 패션 시장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예술 양식 중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각종 이미지를 활용한 팝아트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문화의 대중예술이다. 현대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의 예술을 가능케 하였으며, 일상의 소재들을 예술 영역으로 끌어들여 창작함으로써 우리 생활과 밀착된 예술이 팝아트이다. 오늘날 예술계에서 민화에 팝아트적인 요소를 더하여 민화와 팝아트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민화와 팝아트의 만남은 국제적 다국적 시대에 우리 민족 정서를 계승하면서 소비자에게 고감각, 고품격 상품 이미지로 우리 전통 고유의 미적 특성을 담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생활미가 담겨 있어 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는 옛 그림의 민화와, 대중예술인 팝아트의 미적 특성의 유사점을 도출하여 민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팝아트화하여 이를 패션디자인에 응용하고, 또한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 가능성 및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로 민화가 가진 전통미가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시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민화 관련 문헌, 선행 연구 자료, 회화 그림,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을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으로 도출하여 이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4점을 제작하였다.

주제어 : 민화와 팝아트,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

*교신저자: 송혜련, songiya@hanmail.net

접수일: 2020년 11월 2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24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계속되는 세계화 추세에 소비자의 고감각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문화나 디자인을 통하여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표현하고, 자주성을 부각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 전통문화가 담긴 한국의 디자인이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인 미로써 인정 받아들여질 때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정신문화가 담겨있는 민화는 민중의 삶 속에서 태어나 민족의 정신문화가 담겨있는 한국의 고유한 회화 양식이다. 민화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조형적 특성은 다른 어느 회화보다 민족의식이 담겨있는 독창적인 회화이다. 한국의 민족적 정서를 잘 표현한 시각적 자료인 민화를 모티브로 이용한 여러 분야의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19세기 말 유행한 민화의 독특한 양식은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는 해방의 미술로서 오늘날 예술에서 그 형식적 차용이 가능하다. 섬세한 표현의 장식성과 실용성을 함께 지닌 민화의 예술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민화는 우리의 민족의식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아 20세기 이후 민화의 조형성을 찾으려는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다(Song & Kim, 2011). 민화가 현대 예술에 사용될 때 단순히 전통으로 회귀하거나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중적 정서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계승되어야 한다. 표현적 미적 특성에서 단순히 전통적 소재와 표현기법만을 차용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 생활습관, 삶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내용적 미적 특성이 담겨 있는 예

술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팝아트(pop art)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문화의 대중예술이다. 현대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의 예술을 가능케 하였으며, 일상의 소재들을 예술영역으로 끌어들여 창작함으로써 우리 생활과 밀착된 예술이 팝아트이다. 오늘날 예술계에서 민화에 팝아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민화와 팝아트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민화와 팝아트의 만남은 다국적 시대에 우리 민족 정서를 계승하면서 소비자의 고감각에 맞는 고품격 상품 이미지로 우리 전통 고유의 미적 특성을 담아내는 작업이다.

본 연구자는 민화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를 발표하였으며(Song & Kim, 2011), 연구자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민화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사임당의 조충도를 모티브로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Song et al, 2015), 민화의 화조화에 나타난 모티브와 색채를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Yum, 2016),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Lee, 2017), 조선 시대 민화를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개발(Jung, 2019) 등에서 보듯 민화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과 일러스트레이션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을 연구한 논문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며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정감이 표현된 옛 그림인 민화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문화의 대중예술인 팝아트의 미적 특성을 살펴 유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변용하고 민화와 팝아트를 융합하여 한국 민화 이미지 표현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제안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 민화와 팝아트의 정의와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민화와 팝아트가 가지고 있는 표현적 미적 특성으로 형태, 색채, 구도를 고찰하고, 내용적 미적 특성으로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을 도출하고 그 조형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민화와 팝아트의 미적 특성에서 언급한 표현적 미적 특성과 내용적 미적 특성 내용을 바탕으로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을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으로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4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민화에 관련된 문헌, 선행 연구 자료, 회화 그림,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을 적용한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II. 민화와 팝아트의 일반적 고찰

1. 민화와 팝아트의 정의와 발생 과정

1) 민화의 정의와 발생 과정

민화란 일반 대중의 그림, 민간의 그림, 일반 서민의 그림이다. 민화는 민간에게 전승되어 온 서민들에 의해 그려졌고 우리의 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생활철학이 회화의 형식으로 표현된 주제성이 강한 그림이며 전통 그림의 대중화에 근거하고 있다. 민화의 발생 과정을 보면 선사시대의 원시미술과 맥락을 같이하며 민화에 나오는 소재나 주제들은 청동기, 석기시대의 암각화에서도 보이고, 삼국 시대의 고분벽화나 유물에서 발견되기도 했다(Han, 2007). 조선 시대에 민화는 왕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생활공간에 장소와 의식, 계절에 맞는 그림을 장식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실용과 장식

을 목적으로 빈부의 차이와 전통 사회의 계층을 초월해 전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승유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정화 교육적 귀감을 목적으로 하는 효 제도와 문자도의 민화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Im, 1997).

민화가 순수한 회화 양식으로 본격적으로 화폭에 옮겨 제작된 것은 조선 시대 말기이다. 17, 18세기 조선 후기는 실학사상의 대두로 화제가 유통되고 상업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에 신흥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예술에서는 새로운 창작의식과 함께 서민예술이 출현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부의 축적과 신분제도가 와해되어 평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시작해 새로운 그림의 수요층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민본사상이 대두되면서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적 내용과 해학성이 두드러진 풍속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민중의 예술이 일상생활 속에서 넓게 전개되었다. 정식 도화원의 화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일반 백성 중 그림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박하고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민화가 그려지게 되었다(Shim, 2000).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화들은 거의 조선 시대 후기에 그려졌다.

2) 팝아트의 정의와 발생 과정

팝아트는 영국과 미국에서 반(反)사회적 성향과 대중적 취미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대중문화를 미술 속으로 끌어들이는 미술사조이다. 팝아트는 미술사조에 있어서 하나의 양식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1960년대 초반에 유행한 연재만화와 선전용 포스트와 같은 응용미술 부분에서 착안해서 파장된 형태와 이미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구상회화(figurative painting)의 한 양식이다(Piper, 1984).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팝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 ‘팝아트’라는 용어는 1920년대 영국에서 사용된 ‘popular music’을 ‘pop music’으로 일컬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대

중 예술(popular art)'의 준말이며 영국의 평론가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에 의해서 1954년 처음 사용되었다(Jin et al., 2015).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산업화의 성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량생산이 빨리 보편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이 일어남에 따라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중산층 문화에는 자유분방한 소비중심주의라는 특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대량생산에 의한 규격화된 물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해 내는 방식을 찬양해 냈으며, 그에 따른 대량소비, 즉 새로 생산된 다량의 물품들에 대한 많은 수요를 창출해냈다.

팝아트는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미지나 물체를 미술 작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혼합한다는 것,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을 생활과 혼합시킨다는 개념이 팝아트의 가장 큰 혁명 중 하나이다. 팝아트는 이러한 이미지의 대중화 형상의 부활이다. 팝아트는 현실과 유리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전통적인 예술관을 극복하고 예술을 일상적인 삶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예술을 특정 계층의 전유물에서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시드니의 자니스(Janis) 화랑에서 열린 『새로운 리얼리스트(New Realists)』 전시회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클래스 올덴버그를 비롯해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전시로 인해 팝아트는 결정적으로 공인 받게 되고 60년대 미국의 예술계와 사회문화 전반의 분위기를 기초적으로 풍미하게 되었고 급속히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2. 민화와 팝아트의 미적 특성

1) 민화의 미적 특성

민화는 주제와 기법이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삶의 양식에 의해 정착된 그림이다. 그래서 사실감 있게 그려지기보다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평면

적이며 윤곽적인 처리로 마무리 짓고 있다. 묘사하기 쉬웠기 때문에 점차 사실성에서 멀어지면서 형태, 구도와 색채 등의 표현적 특성으로 변모되었다. 민화에서는 형태, 색채, 구도와 같은 표현적 특성을 통하여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과 같은 내용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Song & Kim 2011).

(1) 표현적 미적 특성

한국 민화에서 형태 표현은 선과 색채를 사용하여 평면적 구조 속에서 관념적인 조형공간으로 이미지를 구체화 시켰다. 민화의 선은 기존의 필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는 하나의 테두리, 즉 윤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화는 밑그림을 베껴 그릴 수 있는 '본'을 사용한다. 다수의 민화에는 단순화되거나 독특하게 도식화되어 그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도안도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그림도 밑그림에 해당하는 '본'을 사용함으로써 반복적 재생산이 가능해졌다(Yoon, 2009).

민화는 단순화되고 평면화된 형태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입체감이나 사물 상하 간의 공간감이 무시된 채 평면화되어 있다. 궁중 회화나 문인화는 현실적인 형태에 기반을 두어 그려지지만, 민화는 형태가 화가의 의지에 의해 재구성되어 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화에 그려지는 대상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가 작가의 생각과 느낌에 의해 단순화되고 평면화되는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민화를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그림이 아닌 현실감이 결여된 그림이 되게 하였으며,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Chung, 2011). 민화는 되풀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형의 평면적 처리가 묘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민화는 각 면이 지닌 강하고 밝은 색채 효과를 중요하게 여겨 서구의 팝아트와 유사한 구성면이 나타난다. 민화의 형태 표현은 윤곽이 강한 선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단순화, 과장화, 반복적인 겹쳐짐으로 도식화된다. 이

러한 표현은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독특한 특성을 드러난다. 이처럼 도식화된 선은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며, 실크스크린으로 기법 등으로 대량생산된 팝아트의 선과 매우 유사하다.

정통 회화가 수묵 위주의 절제된 색채를 사용하는 데 비해 민화에서는 강렬한 원색이 사용되고 있다. 민중들은 원색이 주는 감각적 쾌감을 좋아하여 민화를 그릴 때 표현될 주제에 원색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 하나하나의 고유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원색을 골라 개별적으로 칠하였으며 대상 고유의 색보다 화면 속의 색의 조화를 중시하여 질서를 찾으려는 민화만의 독특한 색채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Jeong, 2009). 민화에 사용된 색채는 대부분 원색으로 이루어졌으나, 미색이나 무채색으로 소박한 색채가 사용된 경우도 종종 보인다.

(2) 내용적 미적 특성

① 대중성

민화는 대중에 의해 그려진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그림으로 작품 주제가 주로 생활 속 서민들의 일 하는 모습, 놀이를 즐기는 모습, 쉬는 모습 등 친숙한 모습이 많이 표현된다. 또한 민화가 쓰인 용도는 벽에 직접 도배하거나, 병풍, 족자 등으로 사용된 생활필수품이 많다. 일반 백성의 민화는 궁중용 민화에 비해 크기가 작고, 비싼 견본(絹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본(紙本)이 많았다. 서민이 그린 작품으로 전문 화공이 그린 것에 비해 그 완성도나 화법이 서툰 작품도 보이나 이러한 작품도 민화 특유의 미적 특징이 많이 보인다.

대중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생활화였던 민화는 많은 대중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답습되어 오는 모사된 그림이었다. 그림을 반복적으로 모사되어 그려지면서 본래 그림의 상류층이 가진 유교적 가치관이 자신들의 염원과 성원이 깃든 그들만의 세계관으로 변모되었다. 그래서 민화에는 서민들

의 소박하고 진실한 독특한 미적 특징이 나타난다.

② 상징성

민화는 민중이 소망하던 염원과 현세의 복락을 추구하기도 하며 종교적인 뜻을 담기도 한다. 민화에는 인간의 소망으로 부귀영화, 벽사수호, 무병장수, 학문선양, 다남, 남녀화합, 자연순배와 경모사상 등을 내포하여 상징성을 갖는다. 문자도를 대표하는 효제문자도는 유교에서 선비의 덕목지침인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엄(廉), 치(恥) 여덟 글자가 등장하고 여기에 회화적 요소를 더해 고사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려 넣었다.

민화에는 오방색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오방색은 색마다 상징이 있다. 그 상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색은 중심색이며 ‘土’를 상징하고, 적색은 ‘火’, 청색은 ‘木’, 백색은 ‘金’, 흑색은 ‘水’를 상징한다. 이처럼 민화는 상징이 있는 오방색을 사용하여 미적 가치를 더 할 뿐 아니라 주술적 염원이 내재한 상징성이 강한 그림이다.

③ 해학성

해학은 사전적으로 ‘익살스러운 가운데 점잖은 말이나 짓’을 뜻하며 유모로 번역된다(Lee, 2017). 조선 후기 민화에는 동물을 의인화나 과장된 인물상의 표정을 통해 익살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해학이 가장 잘 나타난 민화로는 까치호랑이가 있다. 까치의 당당함과 호랑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현실 세계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다. 조선 시대 후기의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민중들은 해학과 풍자를 통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고 민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집단적인 사상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민화 속 해학은 삶 속에서 겪으며 습득하게 된 달관의 경지이며, 뒤틀림과 왜곡을 통해 대상이 가지는 일반적 이미지나 의미가 아닌 이중적 이미지를 전달하며 웃음을 선사한다(Lee, 2010). 따라서 민화에 담긴 해학과 풍자는 유교 중심의 사

회적인 제도 안에서 지배 계층들의 불합리한 횡포에 대한 민중의 저항 수단이 되었다.

④ 실용성

민화는 생활화, 실용화로서 주거공간에서의 생활필수품으로 사용된 모든 사람의 그림이었다. 민화의 벽, 병풍과 족자, 다락문, 문살과 창호지 등 장식에도 사용되고 꽃가마를 치장하는 호피도, 가구, 문방구, 도자기, 돛자리 등 생활용품 속의 그림이다. 민화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한 그림으로 주로 길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장식적이며 밝고 화려한 분위기로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해주었다. 민화는 조선 후기 생활문화의 소산이며, 소박한 생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전해 그려졌다. 민화는 삶과 일치된 예술로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던 실용화이다(Song & Kim, 2011).

2) 팝아트의 미적 특성

팝아트의 이미지는 대중문화에서 나온다. 팝아트의 작품은 일상적이며, 레디메이드 이미지(ready-made image)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현대 문명 속에서 대량생산되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온갖 이미지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기계적으로 재현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대중적 이미지가 알려지게 되고 물질문화화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으로 보인다. 이는 대량 기계 생산, 대량 전달이라는 현대 문명의 비개성화의 특징이 예술 자체를 조건화시킨 것이다. 이미지의 홍수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산업화된 현실은 우리들의 주위 환경을 가볍고 비판 없이 반영하여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추상화의 내적 모티브에서 벗어나 외적인 현실에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1) 표현적 미적 특성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을 보면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망점이나 다양한 패턴이 절제되어 굵고 뚜렷한 테두리 등이 눈에 띈다. 1950년대 말부터 실제 만화의 유명 캐릭터 이미지들을 추상과 조금씩 결합해 사용하였다. 그는 종종 슬라이드 환등기를 이용하여 작은 만화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여 그 윤곽을 따라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인쇄 과정 중에 생기는 망점이 눈에 띄게 확대되어 나타나는데, 그는 이러한 기술적인 과정을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작품에서 묘사된 이미지가 단순히 만화 이미지를 복제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만화의 원래의 이미지보다 윤곽선을 더욱 강조하고 보다 평면적인 색면과 강한 명암법을 통하여 그래픽적인 성격의 선을 강화하였다. 키스 해링(Keith Haring)은 그래피티에서 만화적인 간결한 드로잉 선과 두꺼운 윤곽선으로 주변의 평범한 주제와 소재를 그려 누구나 미술을 쉽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팝아트의 색채는 짙고 대중적이고, 밝고, 열정적이고, 대담한 색으로 날카롭고 자극적이며 선명한 시각 효과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중적이며 일상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싸고, 밝고 경쾌한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그 새로운 자극에 대중들은 열광하였다. 팝아트 색채의 특성은 거리에서 수없이 마주치게 되는 광고판이나 전단지 등에 주로 사용되는 색을 일상적 색채로 색의 보편화, 표준화를 이루었다(Jeong, 2006). 팝아트 작가들은 포스터나 광고 전단 등 상업 미술에 사용되던 인쇄 기법인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감정이 배제된 객관성과 평면화의 정립 그리고 에어 브러시 작업으로 색채의 평면적 느낌을 주고 작품의 색상이 선명하게 남는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앤디 워홀의 작품 『메릴린(Marilyn)』은 원색의 메릴린 먼로(Marilyn Monroe) 얼굴을 강렬한 색상 대비를 주어 여러 번 반복해 팝아트의 색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워홀의 많은 연작은 색채

의 변화 또는 반복적인 점층 효과나 레이아웃의 변화 등으로 간결한 형태의 반복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단조로움을 상쇄시켰다. 동일한 형태의 반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원색을 과감히 사용하여 색채 배합의 조화를 주었다. 그의 작품의 전형적인 제작 방법인 한 점의 실크스 크린 원판은 다양한 색조, 색상, 디자인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동일한 이미지를 수백 개씩 만들어내며, 안료, 잉크의 양, 밀도의 압력, 이미지의 자리 바꿈이나 겹쳐 찍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구사하는데 사용했다.

민화의 색채에서 원색의 사용과 대조적으로 무채색을 사용한 것과 같이 팝아트 작품에서도 무채색 작품이 종종 보인다. 두 폭의 『메릴린』에서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대비로 색다른 시각의 변형을 보인다. 한쪽 패널은 밝은 빛과 현란한 색채를 사용하고, 다른 패널은 대조적으로 잉크가 얼룩진 이미지로 무채색의 윤곽만이 보인다. 워홀의 분홍 위에 검정 메릴린 머로는 강한 원색과 대비되며 색다른 시각의 변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팝아트의 색채는 원색의 강렬한 색상 대비를 준 작품과 무채색을 사용한 작품이 많이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민화에서도 보였다.

(2) 내용적 미적 특성

① 대중성

1950년대 후반 과학기술과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비인간화 속에 복제예술이 출현하는 대중문화가 발생하였다. 팝아트는 엘리트의 전유물이라고 간주하던 순수미술에 반엘리트적인 대중매체 이미지 차용과 주변의 상황을 도입시켜 예술의 대중화라는 가치를 실현했다(Kim, 2014). ‘고상한 미술’에 반기를 들고 ‘저속한’ 대중문화의 접합을 주도하던 팝아트는 고도로 산업화된 실용주의 노선의 미술이며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다루는 미술이라 할 수 있다(Back, 2010).

1960년대 미국은 할리우드(Hollywood)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팝아트 작가들은 스타들을 작품에 반영했는데 워홀은 그의 작품에서 마릴린 먼로, 모나리자(Mona Lisa), 제클린 케네디(Jackie Kennedy) 등과 같은 대중적 인물의 이미지를 제시하거나 미키 마우스(Mickey mouse)와 같은 만화의 주인공 또는 수프 강통이나 코카콜라(Coca-Cola) 등의 일상용품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또한 음료 광고 포스터로 대중적인 상품의 이미지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색채 사용에 있어서도 일상용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싸고, 원색의 강렬한 색상대비를 주어 이를 보편화시키고 대중에게는 그 의미를 다중화했다. 또한 팝아트의 작품들은 전형적인 전시 공간보다는 지하철 벽화, 음반 표지, 애니메이션, 그리고 공공 미술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더 많은 대중들이 보기를 원한다.

팝아트 작가는 생산과 소비에 친숙했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이를 편안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 친화적인 팝아트는 대량생산과 소비미학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팝아트 개념을 도입한 의상 디자인은 이러한 이유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편의성과 마음에 맞는 디자인 정서로 다가가 생활예술의 하나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상징성

팝아트 작가들은 주변의 일상적인 소재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미지를 재현하였는데 팝아트 자체가 현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대중문화가 상징적인 이미지로 작품에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제스퍼 존스(Jasper Johns)의 상징적인 이미지 소재는 성조기, 지폐, 숫자 등의 일상적인 기호들을 단순한 형태를 표현하였고, 워홀은 개인의 기호품이라든가, 개인이 선망하는 대중 스타가 아닌

모든 대중에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상징’ 혹은 ‘기호’로서의 대상을 작품에 차용했다(Shin, 2007). 이처럼 팝아트 작가들은 가장 평범한 사물에서 느껴지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단순화하면서 평범한 소재를 차용하였다. 또한 소재로 문자와 숫자 같은 상징적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징성을 추구하였다.

③ 해학성

팝아트의 주제는 대중적 이미지를 해학적으로 차용한 데서 시작한다.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만화의 형식, 주제, 기법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값싼 만화가 인쇄되는 제판 과정에서 생기는 망점을 세밀하게 재현하여 사물을 확대하는데 이용하였다. 망점이 훔칠 정도로 크게 드러나도록 확대한 뒤, 이를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다시 그리는 방식으로 현대인이 의존하는 인쇄기술이 사실은 망점 여러 개가 찍힌 ‘눈속임’이라는 것이다. 여러 개의 넓은 붓 자국을 만화 형식으로 변형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기법을 통하여 작품에 작가의 손이 안 들어간 듯 위장하고 추상표현주의의 과장된 표현 방법을 풍자했다.

올덴버그는 작품의 크기, 재료, 질감에서 놀라움을 일으킨다. 1961년에 음식물 모형을 파는 상점을 열었으며 그 후 일상용품을 거대하게 확대, 변형하여 관객의 심리에 충격을 준다든지, 전기 청소기나 선풍기 등의 경질 기계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모조한 해학적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이례적으로 대규모적이나 주제는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속성을 드러내어 해학성과 함께 대중문화와 제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해링의 대표적인 아이콘 중 하나인 눈이 세 개인 네모 얼굴에서 세 개 달린 눈과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보인다.

④ 실용성

팝아트 작품은 생활 속의 일상용품과 일상생활의 장면이 인쇄된 그림들을 작가 개인적 방법으로 다시 표현하는 재현적 회화이다. 이렇게 재생산된 작품의 특징은 일반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고 즐겨 애용되는 오브제이다. 현대 문명 속에서 대량 생산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팝아트 작가들의 오브제는 실용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크스크린은 어떤 이미지를 하나의 화폭이나 연속적으로 이어진 동일한 화폭에 손쉽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량생산을 고려할 때, 실크스크린은 생산율에 가속도를 붙여 생산고를 늘린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있는 기법이다. 1960년대 이후 위홀은 실크스크린을 이용해 작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고 그의 회화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실크스크린 기법은 그에 의해 처음으로 예술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원래 실크스크린은 상업용으로 활자 인쇄와 장식적 인쇄에 사용되었고, 포스터를 대량생산하면서 널리 알려진 실용적인 기법이다.

한 점의 실크스크린 원판은 다양한 색조, 색상, 디자인으로 변화되면서 여러 곳에 구사되고 계속 반복해서 복제될 수 있었다. 그의 작업은 원하는 숫자만큼 한 모델로부터 같은 이미지를 반복될 수 있으나, 우선 모델이 되는 형판을 이용할 때 손에 의해 일일이 윤곽선을 복사지로 옮기거나 도장을 하나하나 찍어야 하는 수공적인 성격이 강한 방법이라서 위홀은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채택하였다.

위홀은 자신의 작업장을 가계가 상품을 제조하는 팩토리(factory) 즉, 공장이라 불렀으며 그의 작품은 전문 작가가 아닌 보조자에 의해 완성되기도 하였다. 해링 또한 자신의 작품을 대중이 좀 더 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뉴욕 맨해튼에 ‘팝숍

(Pop Shop)’이라는 가게를 열었다. 이곳에서 그의 다양한 물품과 T 셔츠를 팔면서 자신의 작품을 일상용품으로 상품화하였다는 점에서 팝아트의 실용성을 볼 수 있다(Song, 2011).

III.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 및 작품 제작

1.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

우리 민화는 옛 그림이지만 미감의 측면 때문에 현대에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조선 시대에 민화를 그린 사람들은 전통회화 화법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통화법으로부터 이탈한 결과 오히려 새로운 회화미와 미학적 의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민화에서 현대 미술의 특성이 발견될 수 있고, 이런 매력 때문에 현대에 와서 민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민화를 현대에 접목해 디자인에 응용하여 작품들에 시도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민화와 팝아트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두 예술은 대중이 중심이 되는 미술 문화로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이다. 주제 표현에 있어서도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소재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표현 재료와 기법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였다(Jeong, 2009).

1) 대중성

한국의 민화와 서구의 팝아트는 귀족층이나 미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로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예술은 발생 시기와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배경에서 대중성이라는 유사점을 갖는다.

민화의 기원은 연구가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화가 주로 그려진 시기는

조선 시대 후기였다. 신분제의 와해 현상, 상업의 발달, 신흥계급의 증가로 일반 민중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이전보다 높아지는 시기였다. 왕족이나 사대부가 순수 정통 회화를 즐기듯 신흥계급이나 민중들도 일반 대중을 주제로 한 민화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서구의 팝아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기계화에 따른 물질 만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50-60년대의 공업화된 사회에서 대중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졌고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가했다. 당시 엘리트들이 추구하던 다다이즘(dadaism)과 추상표현주의와 같은 난해한 순수미술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대중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주제를 다룬 팝아트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민화는 생활 속 서민들의 일 하는 모습, 놀이를 즐기는 모습, 쉬는 모습 등 친숙한 모습이 많이 표현된다. 이외에도 돌잔치, 과거급제, 회갑 잔치와 같이 일상적인 삶의 단편을 표현하여 대중성을 보인다.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팝아트는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의 일상과 주변 생활을 소재로 사용한다. 팝아트는 순수미술과 달리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일상용품을 작품의 주제로 자주 등장시켜 기존의 엘리트층에서만 누리던 순수미술 영역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팝아트의 작품들은 전형적인 전시 공간보다 개방된 지하철벽화, 음반 표지, 애니메이션 그리고 공공 미술 등과 같이 다소 대중적인 공간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민화와 팝아트는 대중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을 직접 반영하는 예술이며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중적 예술이다.

민화와 팝아트는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했다. 민화의 초기 책가도에서 이전 그림에서 들어가지 않던 도상이 삽입되었다. 후기의 책가도는 선비의 상징물이 사라

지고 대중의 삶을 반영하는 그림으로 바뀐 것이다. 팝아트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상의 오브제를 작품에 등장시킴으로써 대중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어 호응을 얻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민화와 팝아트는 대체로 유쾌하다. 민화는 대중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명랑하고 유쾌하게 표현되었다. 우리 민족의 낙천적인 기질이 밝은 정서와 결합하면서 민화는 더욱 유쾌한 그림으로 재탄생되었다. 팝아트 또한 대중적 기호에 맞게 유쾌하게 제작되고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민화와 함께 대중성을 느끼게 한다.

대중들이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 민화에 사용된 평면적인 형태감은 팝아트에서도 나타난다. 리히텐슈타인의 만화에서 사용된 테두리 표현기법과 민화에서 흔히 사용된 윤곽선의 표현기법은 서로 유사함을 보인다. 민화의 형태 표현은 윤곽선의 선 처리로 표현되고 단순화, 과장, 반복적인 겹쳐짐으로 도식화된다. 민화는 본을 그려 그 안을 채색하는 ‘본의 그림’으로 모방하기 쉬웠고,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Figure 1). 팝아트의 선 또한 평면화된 색면을 통해 윤곽이 강조된 그래픽적인 성격의 선이 특징이다.

서구의 팝아트는 물질문명의 사회를 일상적이며 대중적인 소재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표현한다. 워홀은 작품에 스타나 유명 인물, 일상용품, 성, 만화 주인공 등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복제하며, 표현 방법을 보편화하여 예술이 특정 소수 계층의 산물이 아니라 대중들도 가까이 즐기도록 하였다(Figure 2). 팝아트의 이러한 형태 표현은 실크스크린 기법이 작품에 많이 보인다. 기법으로 다량 복제된 작품은 대중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순수 정통 회화가 수묵 위주의 절제된 색채를 사용하는데 비해 민화에서는 민중들이 좋아하는 기본적 욕구와 감각적 쾌감에 충실한 강렬한 원색

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팝아트의 색채 역시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원색적이고 대담한 색으로 생동감 있고, 열정적이고, 날카롭고, 자극적이며 선명한 시각 효과를 추구하였다. 즉 팝아트는 일상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2) 상징성

민화에는 인간으로서의 소박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벽사수호, 부귀영화, 학문선양, 무병장수, 남녀화합, 다남, 자연숭배와 경모사상 등 주술적 필요에 의한 것인 많은 상징적인 도상들이 내포되어 있다. 민화에 가장 많이 보이는 화조도 중에서 모란은 왕의 꽃이라 일컬어지며 가장 비중 있는 소재이다. 모란은 부귀, 잉어는 출세, 호랑이는 벽사(辟邪)나 부패한 관리, 용은 가뭄에 비를 염원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문자도(Figure 3)를 대표하는 효제문자도는 유교의 도덕 강령으로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엄(廉), 치(恥) 여덟 글자에 일정한 기본 도상에 따라 고사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려 넣는다.

문자도 이외에도 그림 한쪽에 문자를 넣어 상징적인 참언을 표현한 민화도 종종 보이는데, 팝아트의 작품에서 상징적 문자나 기호 숫자를 넣어 기계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와 유사하다.

민화에 자주 사용된 오방색도 색마다 상징성이 있다. 팝아트에는 현대사회의 대중문화가 상징적인 이미지로 작품에 표현되었다. 팝아트 작가들은 가장 평범한 사물에서 느껴지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단순화하면서 평범한 소재를 차용하였다. 존스는 미국의 상징적 이미지 성조기를 작품에 소재로 사용하였다(Figure 4). 또한 소재로 문자와 숫자 같은 상징적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징성을 추구하였다.

3) 해학성

민화가 가장 활발하게 제작된 조선 후기는 유교가 사회체제를 지배함과 동시에 사회제도의 모순, 사상적 혼란, 당파 싸움, 양난 등으로 서민의 대다수가 불만과 억압된 심리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제작된 민화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풍자와 해학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민화는 선과 색 그리고 면이 섬세하게 조화됨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해학적 감성을 유발하였다. 조선 후기 민화에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 유머의 극치를 익살스럽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로 호랑이를 골려주는 까치나 또 토끼 꼬임에 빠진 호랑이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까치 호랑이에서는 비재현적인 표현 형태로 그 구도는 호랑이가 전체 화면을 압도하며 전체의 균형 속에 형태를 왜곡하여 추상적으로 표현되면서 해학미를 지니며 힘없고 말 못하는 서민들이 양반 사회를 조롱하면서 웃음을 자아냈을 것이다(Figure 5).

정통 회화가 목 위주로 담채나 진채로 채색이 되는데 반해, 민화는 담채나 진채의 채색 기법 외에, 불에 달군 쇠붙이, 포도즙, 손가락, 버드나무 가지, 가죽 모서리 등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또한, 민화는 한지, 옷감, 목재 등 표현 재료에서도 재미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그 기법에도 해학성이 나타난다.

팝아트의 주제는 대중적 이미지를 해학적으로 차용한데서 시작한 경우가 많다. 올덴버그는 일상용품 예를 들면 햄버거 등을 거대하게 확대, 변형시켰다.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의 기법, 형식, 주제 등을 사용하면서 인쇄 과정에서 생기는 망점을 흉할 정도로 과장하여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해학성을 보여주었다(Figure 6). 해링은 그의 작품에 눈이 세 개인 달린 네모 얼굴 아이콘을 사용하여 해학적인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콜라주(collage) 기법은 기존의 회화 기법에 반대하여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던 생활 주변의








비예술적 오브제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팝아트의 표현기법 중 하나이다. 콜라주는 신문, 잡지 등 종이를 찢어 붙이거나 다른 오브제를 부착시키는 기존의 표현기법과는 다른 재미있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작품에 소재를 무한하게 확장시켜주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 재료로 쓰였다는 점에서 해학성을 준다.

4) 실용성

민화는 장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용적이며 집안이나 병풍, 생활용품뿐만 생활 곳곳에서 두루 쓰였다. 조선 후기 금속화폐의 유통과 경제적 발전, 농업과 수공업상의 생산 확대에 의해 경제적 잉여가 발생하였다. 문화에 대한 욕구로 인해 회화가 도자기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에 상품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Figure 7). 집안 장식과 잔치 분위기를 더하고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소비되었던 민화는 점점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민화는 반복해서 다량으로 그려져 다양한 수주의 민화 공급이 이루어졌다. 팝아트는 실크스크린 기법과 판화 기법으로 다량 복제되어 대중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Figure 8>은 워홀이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를 은색 배경에 검은색 자동차 래커 한 통을 모두 사용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다량 제작한 작품 중 한 점이다.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을 정리한 것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민화와 팝아트는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그림을 다량으로 반복 복제되어 사람에게 판매되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기에 소비자의 취향에 전적으로 맞춰 제작되었고 다수의 소비자를 의식하며 실용적 성향을 가진 그림으로 발전한다. 이렇듯 대중에 의해 발전된 민화와 팝아트는 유통의 부분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라는 그 성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성향은 불특정 다수가 공감하는 그림의 생산으로 이어져 민화와 팝아트는 실용성을

Table 1. Similarity of Korean folk painting and pop art.

| 유사성 | 대중성 | 상징성 | 해학성 | 실용성 |
|-----|---|--|---|--|
| 민화 |  Figure 1. 화조도. From Yoon. (2004). p. 90. |  Figure 3. 문자도. From Yoon. (2004). p. 90. |  Figure 5. 작호도. From Yoon. (2004). p. 461. |  Figure 7. 백작청화호작문호. From Gonjidak. (2016). https://gonjidak.tistory.com |
| | 대중적 이미지, 대중적 원색, 무채색, 본의 그림 | 문자도, 오방색 | 작호도, 동물의 의인화, 사물 변형 확대 | 생활필수품, 실용 아이템 |
| 팝아트 |  Figure 2. Campbell Soup. From "Campbell's Soup". (n.d.). https://www.charitystars.com |  Figure 4. The three flags. From Three Flags. (n.d.). https://en.wikipedia.org |  Figure 6. Reverie, 1965. From "Roy Liechkenstein". (n.d.). https://www.masterworksfineart.com |  Figure 8. Emperor. From The American dream. (n.d.). https://www.artgallery.nsw.gov.au |
| | 일상적 소재와 이미지, 대중적 원색, 무채색, 윤곽선 | 상징물, 문자, 숫자 레터링, 그래피티 | 만화 이미지, 확대, 변형, 콜라주 | 실크스크린, 상품화 |

가진 작품으로 유사점을 가지게 된다. 팝아트 작품은 생활 속의 일상용품이나 일상생활의 장면이 인쇄된 그림들을 작가 개인적 방법으로 다시 표현하는 재현적 회화로 상품화된 경우가 많아 우리 생활과 밀착된 미술이 되었다. 위홀은 실크스크린을 이용해 작품을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업실 ‘팩토리’를 두고 완전한 공장 시스템으로 실용성 있는 작품을 양산해 내기 시작했다. 해링 또한 팝숍이라는 가게를 열고 자신의 작품을 실용성 있게 상품화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민화는 현대 미술과 조형적인 면과 성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 민화와 팝아트는 미술 문화를 특권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향유하도록 하였고, 미술이 대중적 성격을 띠 수 있도록 일상적이고 민중적인 삶과 직접 연관되는 소재를 끌어왔다. 또한 민화의 일정한 본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나 팝아트의 판화 기법은 대량생산을 통해 미술 문화 향유 계층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였다(Song, 2011).

2.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민화와 팝아트의 융합은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일반적 고찰을 통해 민화와 팝아트의 미적 특성의 유사성으로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을 유출해 냈다. 이 4가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담긴 이미지로 모티브를 재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패션디자인 작품 4점을 제작하였다.

작품에 민화와 팝아트를 패션에 적용함에 있어 민화의 모티브를 살리면서 팝아트와 유사점을 응용해 현대적인 실루엣에 적용하여 기법, 소재, 색상 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전통을 재현하면서 팝아트의 특성과 어울리게 장식성,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의상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민화와 팝아트의 원색 컬러 배색을 강조하기 위해 무채색인 화이트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였다. 전통적 색상과 현대적 색상을 조화시키기 위해 오방색과 오간색을 팝아트 감각에 맞게 컬러를 배색하여 디지털 프린팅과 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해 표현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 4가지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을 각각 1점씩 총 4작장을 디자인하였다. 각 주제에 맞는 모티브와 기법을 선정하여 유사성을 부각하며 디자인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양의 이미지와 서양의

현대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콘셉트로 재킷, 스커트, 볼레로, 드레스, 블라우스, 팬츠 등으로 현대 여성복을 구성하였다.

2) 작품 해설

작품 I은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성 중 대중성이 나타난 작품이다. 김홍도의 풍속화 중 씨름도 <Figure 9>는 『도원풍속도첩』에 속한 대표적 작품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이며 화면 중앙에 한 판 붙은 두 인물과 관중들의 표정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 대중들의 사회상과 정취가 잘 담겨 있는 모습을 작품의 모티브로 선정해 그라피티 선을 더해 재구성하고 원색과 함께 배색시켜 대중성을 강조했다. 아이템으로 여성들이 즐겨 입는 재킷과 스커트를 선택하였다. 재킷의 칼라, 포켓, 스커트에 팝아트에서 추출한 고채도의 다양한 대중적 원색으로 디지털 프린팅이 된 실크가 배색으로 들어가 있다. 스커트 중앙에 민화의 대중성을 보여주는 씨름도가 프린팅되어 팝아트와 민화의 요소가 잘 조화된 작품이다.

작품 II는 봉화도 <Figure 12>를 모티브로 상징성을 나타냈다. 봉황은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상상의 새로 하늘, 으뜸으로 뛰어난 잘난 사람

Table 2. Fashion design based for similarity of Korean folk painting and pop art.

| 작품 I | | | |
|-------|---|---|--|
| 유사성 | 대중성 | | |
| 디자인 |  |  |  |
| | Figure 9. 작품 I 모티브 씨름도, 김홍도. From Kim. (2020). https://www.edaily.co.kr | Figure 10. 작품 I 모티브 변형 이미지. | |
| 아이템 | 재킷, 스커트 | | |
| 소재/기법 | 실크, 폴리에스터 / 디지털 프린팅, 실크스크린 | | |

Figure 11.
민화와 팝아트의 대중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I.

| 작품 II | | | |
|--------|--|--------------------------------------|--|
| 유사성 | 상징성 | | Figure 14. 민화와 팝아트의 상징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II. |
| 디자인 | Figure 12. 작품 II 모티브, 봉황도. From Yoon, (2004). p. 534. | Figure 13. 작품 II 모티브 변형 이미지. | |
| 아이템 | 블라우스, 팬츠 | | |
| 소재/기법 | 면, 패딩슌, 누빔 / 패치워크, 디지털 프린팅 | | |
| 작품 III | | | |
| 유사성 | 해학성 | | Figure 17. 민화와 팝아트의 해학성 응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III. |
| 디자인 | Figure 15. 작품 III 모티브, 까치호랑이. From Yoon, (2004). p. 428. | Figure 16. 작품 III 모티브 변형 이미지. | |
| 아이템 | 블라우스, 팬츠 | | |
| 소재/기법 | 실크 / 콜라주, 디지털 프린팅 | | |
| 작품 IV | | | |
| 유사성 | 실용성 | | Figure 20. 민화와 팝아트의 실용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작품 IV. |
| 디자인 | Figure 18. 작품 IV 모티브, 연화도. From Yoon, (2004). p. 671. | Figure 19. 작품 IV 모티브 변형 이미지. | |
| 아이템 | 재킷, 스커트 | | |
| 소재/기법 | 데님 / 패치워크, 실크스크린 | | |

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봉황 모티브를 양식화된 선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모란과 함께 자수를 가슴 부분에

놓아 길상적 의미를 작품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민화와 팝아트의 화려한 색채를 원피스에 한국의 완만한 유기적인 곡선으로 상징성이

있는 오간색 원단을 패치워크하여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라인을 창조해 보았다. 깃이 달린 파란색의 버선코 라인의 짧은 볼레로는 패딩 솜을 넣어 누빔을 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민화 모티브의 응용과 팝아트의 색상 대비를 도입한 디자인은 대립적 구도로 새로운 이미지를 주며 자주 장식은 드레스에 고상하고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더해 주었다.

작품 III은 민화의 까치 호랑이 <Figure 15>를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캐릭터로 재구성하여 해학성을 강조한다. 민화에 나오는 까치호랑이는 원래 호랑이가 가지고 있던 맹수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표면적인 모습만 차용되어 우스꽝스러워 보여 해학성이 나타난다. 블라우스 끝부분에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호랑이의 얼굴들을 다양하게 변형해 달아주어 움직이는 키네틱 요소가 더욱 해학성을 준다. 짧은 팬츠에 화려한 원색의 허리 리본 벨트는 경쾌함을 더해준다.

작품 IV 민화의 연화도 <Figure 18>을 모티브로 양식화하여 팝아트의 실용적 기법인 실크스크린 기법을 응용한 작품이다. 소재 또한 내구성이 강한 데님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재킷과 스커트를 구성했다. 고결함을 상징하는 연꽃 문양을 실크스크린 하기에 용이하게 양식화하여 원 모양의 외펜 안에 담겨 재킷과 스커트에 수직으로 반복 배열하였다. 연꽃 문양이 실크스크린된 재킷과 스커트는 독특하면서도 평상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의상으로 디자인되었다. 다른 재질의 데님 소재를 문양 사이에 패치워크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고급스러움을 주었고 무채색으로 색상을 통일해 현대적이면서 한국의 단아한 여성미를 주었다.

IV. 결 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유통개방과 소비자의 고

감각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 패션은 무엇보다 차별화된 아름다움의 표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전환과 창의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민중예술인 민화와 서양의 대중예술인 팝아트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다양한 문화적 이질성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상황에서 현대 미술에 여러 각도로 나타난다. 이 같은 현대 미술의 새로운 시도로 인한 민화와 팝아트의 만남은 예술과 대중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아울러 예술 창조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끊임없이 패션 분야에 영감을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민화와 팝아트의 이론적 고찰로 개념, 발생, 전개 과정을 알아보고 미적 특성에 나타난 유사성을 밝혀 민화의 현대적 변용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화와 팝아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얻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화는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발전된 대중적 서민예술이며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염원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민화의 형태 표현은 윤곽선 처리로, 단순화, 평면화, 구성화 되었다. 색채에서 전통색인 오방색과 오간색을 기본으로 원색들의 대비와 무채색의 소박한 색채 사용이 보인다.

둘째, 팝아트는 일상의 대중적 소재들을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창작된 대중예술이다. 팝아트의 형태상 특성에는 반복성과 추상성이 있다. 팝아트는 윤곽선을 더욱 강조하고 보다 평면적인 색면과 강한 명암법을 통하여 그래픽적인 성격의 선을 강화하였다. 또한 원색의 대중적이고, 대담한 색채로 강렬한 색상 대비를 주어 시각적 효과를 주어 예술을 대중화했다.

이처럼 민화와 팝아트는 주제 표현이나 표현 특성에서 많은 미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민화와 팝아트의 미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의 유사성을 도출해냈다.

첫째, 민화와 팝아트는 미술 애호가나 귀족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로서 주변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예술은 발생 시기와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발생 배경에서 대중성이라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민화는 서민들의 친숙한 이미지와 풍경을 주제로 표현되고, 팝아트는 일상용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스타, 만화 이미지를 주제로 등장시키는 대중성이 있다.

둘째, 민화에는 인간의 소박한 바람이라 할 수 있는 벽사수호, 부귀영화, 학문선양, 무병장수, 남녀화합, 다남, 자연숭배와 경모사상 등 많은 상징적인 도상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주술적 의미도 있다. 팝아트 작가들은 일상적인 주변의 소재를 통하여 사회적 이미지를 재현하고, 상징성이 있는 기호나 문자를 레터링 하거나, 그래피티 기법으로 표현해 대중문화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셋째, 민화와 팝아트에는 해학성이 있다. 민화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위트있게 표현하고, 뒤틀림과 왜곡을 통해 비재현적인 표현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팝아트는 대중적인 일상적 주제 이미지를 차용하고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 작품에 해학성을 주었다.

넷째, 민화는 생활화로서 한국의 주거공간에서의 일상 생활공간과 생활필수품에 많이 그려졌다. 팝아트는 생활 속의 일상용품, 일상생활의 장면, 인쇄된 그림들을 작가 개인적 방법으로 다시 표현하는 재현된 회화로 상품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실용성이 있다.

민화의 모티브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할 때 의상에 직유법으로 대입하는 것을 탈피하여 대중적 모티브를 양식화된 선으로 모티브를 재구성하고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모티브를 오방색을 사용해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민화의 작화도는 해학

적 소재로 가치가 높으며 팝아트의 콜라주 기법도 의상에 해학성을 표현하는데 용이했다. 대량생산을 위해 사용된 실크스크린 기법과 내구성 좋은 데님 소재는 의상에 실용성 있게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화의 미적 특성에 팝아트적 요소를 더해 이를 융합하여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변용하고 형상화함으로써 국제 시대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계승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소비자에게 고감각화된 한국 이미지의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민화와 팝아트의 유사점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면 향후 디자인 연구 및 패션 산업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비중 있게 주목받고 있는 패션과 예술의 불가분의 관계가 민화와 팝아트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Baek, W. K. (2010). *Drugstore design using formative factors of pop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Campbell's Soup" by Andy Warhol. (n.d.). *CharityStars*. Retrieved December 9, 2020, from <https://www.charitystars.com/product/campbell-s-soup-by-andy-warhol>
- Chung, B. M. (2011).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Anonymous painter's revolt Korean folk paintings]. Seoul: Dahalmmedia.
- Gonjidak. (2016, June 2). 그림 속 호랑이 이야기(3)-백자 청화호작문호 [The story of the tiger in the picture(3)-Baegjacheonghwahojagmunho]. *Gonjidak Gazebo*. Retrieved December 9, 2020, <https://gonjidak.tistory.com/274>
- Han, J. S. (2007). *A study on make-up and clothing design to apply folk drawing: Painting of flowers and bir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Im, D. B. (1997). *민화란 무엇인가* [What is a folk painting]. Seoul: Seomundang.
- Jeong, K. I. (2006). *The study about expression of pop art: Colors into poc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Jeong, M. K. (2009). *The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for*

- a modern expression using the folk painting: Centering around in senior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 Jin, H. A., Kim, J. I., & Park, H. S. (2015).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awareness of pop art technique applied cultural products. *Journal of Digital Design*, 15(2), 427-439. doi:10.17280/jdd.2015.15.2.040
- Jung, S. H. (2019). The study on development of scarf design by applying the folk painting in Chosun Dynasty: Focused on flower bird painting. *Journal of the Fashion Design*, 19(1), 129-146. doi:10.18652/2019.19.1.8
- Kim, E. B. (2020, May 14). 국립중앙박물관, 단원 김홍도 '풍속도첩' 전시 [National Museum of Korea, Danwon Kim Hong-do 'pungsogdocheob' exhibition]. *edaily*. Retrieved December 9, 2020,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95126625768920&mediaCodeNo=257>
- Kim, S. Y. (2014).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pop art in Jean-Charles de Castelbajac's works.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2(5), 688-701.
- Lee, G. Y. (2010). 민화에 홀리다: 조선 민화 현대의 옷을 입다 [Be absorbed in Korean folk painting: Joseon folk paintings wearing modern clothes]. Paju: Hyohyung.
- Lee, I. Y. (2017). Development of fashion illustration utilizing the characteristic of humorous expression of Korean folk painting. *Journal of Fashion Design*, 17(2), 169-182. doi:10.18652/2017.17.2.11
- Piper, D. (1984).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art & artists*. New York: Random House.
- Roy Lichtenstein, Reverie, 1965. (n.d.). *Masterworks Fine Art*. Retrieved December 9, 2020, from <https://www.masterworksfineart.com/artists/roy-lichtenstein/screen-print/reverie-1965/id/w-4908>
- Shim, J. Y. (2000). 민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 [Folk tale's modern transformation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Shin I. Y. (2007). *A study on Andy Warhol in center pop art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Song, H. R. (2011).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development applying similarity between Korean folk painting and pop 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Song, H. R., & Kim, H. K. (2011).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paintings in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Fashion Design*, 11(1), 103-120.
- Song, J. M., Choi, J. M., & Kim, J. Y. (2015).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 design based on Chochungdo by Shin Saimdang: Through the color expression of pop ar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3(5), 807-821. doi:10.29049/rjcc.2015.23.5.807
- The American dream. (n.d.). *Art Gallery NSW*. Retrieved December 9, 2020, from https://www.artgallery.nsw.gov.au/education/exhibition-kits/pop-to-popism/american-dream/Three_Flags
- Three Flags. (n.d.). *Wikipedia*. Retrieved December 9,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wiki/Three_Flags
- Yoon, Y. S. (2004). 민화 [Korea art book Folk tale]. Goyang: Yekyung Publishing Co.
- Yoon, Y. S. (2009). 민화이야기 [Story of Korean folk paintings]. Seoul: Design house.
- Yum, M. S. (2016). Modern fashion design development by using motifs and colors of flower and bird pictures in folk painting.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2), 115-125.

A Study on Fashion Design Based on the Research for Similarity of Korean Folk Painting and Pop Art

Song, Hye Ryeon⁺ · Jung, Hyun Sook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Modern fashion, which has to meet the consumer needs in various cultures, requires different ways of thinking and creative development to express differentiated beauty in a new form. Korean traditional culture can guarante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ly when the customers in other cultural regions recognize it as an universal beauty. Korean folk painting is the art of ordinary people. It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by ordinary people with various symbolic meanings and their aspirations as well as their whole spirits. The splendid colors and formative art figures in Korean folk painting are valuable to challenge the world fashion market when applied on clothes and recreated as differentiated new beauty. Pop art is the popular art which has been created by capitalist society with culture of consumption and a variety of images from popular culture. It made a new perspective of art possible by leveraging our life styl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and came very close to our real life by creating art with materials of everyday life. Today, some artists are trying to combine Korean folk painting and pop art by putting pop art elements onto Korean folk painting. The combination of Korean folk painting and pop art is the work that express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our traditional culture and succeeds to our traditional sentiment with high quality product image in line with customer's high sensitivity in this multinational age.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the similaritie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between folk arts, regarded as a symbolic painting of our national emotion and lives, and pop arts, created by capitalism and consumer culture. Based on the similarities, this study can also be a cornerstone of research to apply the folk painting with a modern perspective, reform the folk painting like pop arts and find the way of expressing Korean image on fashion design. Furtherm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creative and modern possibility of Korean traditional beauty and lets the world know the possibility as well as it presents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fashion design.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related references, previous studies, pictures, painting, art catalogue and internet data. And the similarities between folk painting and pop art are drawn up with the criteria of popularity, symbolism, humor and practicality. Based on those criteria, four fashion design works were created by the author to present the real cases that make use of the elements of similarities.

Key words : Korean folk painting and pop art, popularity, symbolism, humor, practicality